

TV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2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광장	00 특대생활체조 05 겹어서 세계 속으로 스페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30 골든타임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김치>	30 KBC 모닝와이드
15 굿모닝 A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정림동 스캔들>
00 신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40 교황방한 특별생방송 평화와 화해 미사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시사인사이드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20 채널A 뉴스 특보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5 사랑의 가족 45 월화 드라마 <트로트의 연인>(재)	00 MBC 여성토크 위드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20 웰컴 투 시월드	00 KBS 뉴스 12	50 특파원 현장보고(재)	10 MBC 청오 뉴스 20 문화4선	00 SBS12뉴스 30 KBC 월간토론회(재)
30 뉴스특급	00 중계방송 국회 인사청문회	30 영상앨범 산(재)	10 MBC 네트워크특선 <섬은 살아있다 2부>	30 애니왕국
40 직언직설	00 바른말 고요한(재) 05 러브인 아시아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5 다큐+감성	00 SBS뉴스 1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55 정몽관의 시사병법	00 뉴스토크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25 주로영 동물탐정 55 TV유치원 공작공	00 MBC 경제뉴스 10 키즈CSI 과학수사대 40 헬로키아하 과학탐험대	10 우리아이기다라졌어(재)
55 박종진의 캐도남마	00 시사진단 55 튜브 생활 체조(재)	25 꾸러기 캐라츰스 코리요 55 법상의 신(재)	30 똑?똑! 키즈스쿨	00 매일엄마 2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스페셜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세상은 넓다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지니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20 김 대까지 가보자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우기	50 일일드라마 <빠꾸기 동지>	20 생방송 '빛날'	05 닥터 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20 백일섭의 그때 그 사람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위기탈출 남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엄마의 정원>	00 SBS 8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50 채널A 스포츠뉴스	00 가요무대 55 긴급출동 24시	00 월화 드라마 <연애의 발견>	00 월화 드라마 <아정론 일지>	00 월화드라마 <유혹>
0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30 KBS 뉴스라인	1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교황 방한 특집 MBC 다큐스페셜 제2부 <교황의 길>	15 헬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20 모큐드라마 싸인(재) ①:30 부부극장 공각기(재)	30 다큐공감(재) ①:10 T타임 40 알약특독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50 해외걸작드라마 <오렌 블레이크 - 어두운 진실> ①:40 특선다큐 공부하는 인간 아카데미우스(재)	15 MBC 뉴스24 35 스포츠 다이아리 50 스포츠 특선 카툰(재) <슈퍼메이스 원정대 2부>	35 나이트 라인 ①:05 네트워크 전국기행

“로맨스의 진수를 보여 드릴게요”

정유미, '로맨스가 필요해'서 한여름 역



전작들에서 자연스러운 연기와 사랑스러운 매력을 뽐냈던 배우 정유미(31·사진)가 다시 로맨틱 코미디로 돌아온다. '연애지침서'로 불리며 많은 인기를 끌었던 '로맨스가 필요해'의 주연매와 다소 겹치는 캐릭터가 아닌가 우려도 있지만, 정유미는 "전과는 다른 깊이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자신감을 보였다. KBS 2TV 새 월화극 '연애의 발견' 제작발표회에서 극중 한여름 역할을 맡은 정유미는 "여름이 연애에 있어 자기가 욕망하고 꿈꾸는 바를 거침없고 솔직하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캐릭터"라며 "시청자들이 보면서 용기를 얻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연애의 발견'은 '연애는 전쟁이다'라는 명제하에 사실적인 연애의 모습을 그려내겠다는 목표의 작품이다. 연애 2년차에 접어든 한여름(정유미 분)과 남하진(성준 분) 커플 사이에 여름의 옛 남자친구

인 강태하(에릭 분)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한여름은 옛 사랑과 지금의 사랑 남친 사이에서 고민하는 가구 디자이다. 그는 작품을 선택한 동기를 설명하며 "KBS가 저를 선택해 감개가 무량하다(웃음).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생각했다. 연기를 잘하고 싶은데 기회가 많이 오진 않는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어 "전작 캐릭터와 비슷해) 안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했다"면서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 다른 깊이를 보여드리고자 노력하는 스스로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정유미는 '케세라세라' 이후 7년 만에 연기 호흡을 맞추는 에릭에 대해서는 "초반에는 새로운 캐릭터로 만나 연기하는 게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호흡이 굉장히 잘맞고 있다"면서 "그런 편안한 모습이 작품에서 잘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여름이 캐릭터가 설명되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한여름은 '멋진' 두 남자 사이에서 왔다갔다하는 캐릭터다. 여성 시청자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겠다. "조금 지나면 욕을 먹을 것 같아요.(웃음)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욕먹는 것에 대한 겁이나 두려움은 없어요. 여름이는 자기 욕망에 솔직하고 더 표현할 뿐이죠. 모두의 연애에 있는 부분을 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연기의 최고 강점은 자연스러움이다. 연기하는 것 같지 않게 연기한다는 평가를 자주 받는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런 평가가 또 다른 '과제'라고 했다. "자연스러운 연기의 비결요? 스텝, 배우들과 작업 공간 안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있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장점이겠지만, 다른 순간에는 그게 속제고 고민이에요. 그게(연기 안하는 듯한 연기) 맞는 것인지 생각하죠. 매일 저의 한계와 싸우는 기본이 드는 요즘이에요." 이날 제작발표회에서 에릭과 성준을 비롯한 남자 배우들은 거듭 정유미에게 크게 기대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친구 같은 아빠 보여 줄수 있어 행운”

유동근, '가족끼리 왜 이래'서 차순봉 역

친하를 새롭게 열고자 한 왕과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소시민 아버지. 오는 16일 첫 방송되는 KBS 2TV 주말극 '가족끼리 왜 이래' 차순봉 역할을 맡은 배우 유동근(58·사진)의 변신은 아직은 낯설다. KBS 1TV 대하사극 '정도전'에서 특유의 함경도 사투리에 카리스마 넘치는 이성계로 분해 브라운관을 꽉 채운 유동근은 '자식바보' 아버지로 돌아왔다. '가족끼리 왜 이래' 제작발표회에서 만난 유동근은 "차순봉 역할을 맡게 된 것은 제게 행운"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드라마들이 진지하고 강하면서 여자가 몽롱한 아버지의 존재를 보여줬다면 이번 드라마에서는 3남매 자식들과 친구로 지내면서도 홀로 자식을 키워냈던 아버지의 마음을 꺼내 보여주게 될 것 같네요." 극중 흠아빠지인 차순봉은 힘들게 두부를 팔아 자식들을 뒷바라지했고, 그중 첫째딸 감심(김현주 분)과 강제(윤박) 둘을 대기업 회장 비서실장과 의사로 키워냈다. 그는 "자식을 키우는 건 영원한 짝사랑"이라는 말을 곱씹지만, 어느 순간 자식들이 자기 살기 바쁘고 가족은 나 몰라라 하는 현실을 느낄 수 없어 '불효소송'이라는 뜻밖의 카드를 꺼내든다. 유동근은 "우리가 평소 가족에게 서로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다"면서 "극중 불효소송을 통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가진 마음, 자식은 자식대로 가진 마음을 알게 되고 서로 치유가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도전'에서 에너지를 보여줬지만, 차순봉도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역할"이라면서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차순봉을 연기하는 것이고 일단 앞에 있는 것부터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동근은 작년 MBC 드라마 '구가의 서'에서 주인공 강치에게 강치에게 인간적인 가르침을 주는 평생의 멘토인 이순신 역할을 맡았다. 최근 영화 '명량'의 흥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연합뉴스

"명량"의 흥행은 정말 큰 축복"이라며 운을 댄 유동근은 "명량"이나 "정도전" 등을 보면 대중이 그런 리더십을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영화에서 실존인물을 다룬 정통 사극이 성공한 예가 많지는 않았는데 '명량'의 흥행은 큰 축복이에요. 앞으로 영화계에서 실존 인물의 역사를 좀 더 자신있게 준비하면 2회, 3회 좋은 영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유동근은 이와 함께 아내인 배우 전인화(49)를 비롯한 가족들이 '명량'을 관람하고 온 다음 "'명량' 속 이순신" 최민식과 아빠의 손만 같다"는 농담을 했다고 전했다. 유동근은 한편 '구가의 서' 작가가 자신에게 준 글귀 라면서 '세상에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봤다. 사람이기를 포기한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봤다. 그러나 힘들 때마다 내 옆에 있는 병사들을 생각하면 힘을 낸다'라는 글을 소개했다. 그는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 대사를 한마디로 늘 녹두이 녹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가족을 위한 식단>	14: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19:00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재)
05:40 나의 성공비결	10:10 EBS 특강	14:45 미연마이로봇	19:30 EBS뉴스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초능력 특강대	19:5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07:00 놀이터 구조대, 뽀인(재)	11:20 세계테마기행 <페루>(재)	15:15 포피와 친구들	20:40 다큐 오늘
07:15 오스카의 오아시스(재)	12:00 EBS 정오 뉴스	15:30 동물방한 모험	20:50 세계테마기행 <네이멍구>
07:30 풍선 코끼리 발루(재)	12:10 EBS 뉴스 9	16:00 동물방한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태백 삼척>
0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2:40 EBS 스페이스 공감(재)	16:20 오스카의 오아시스	21:50 EBS 다큐프라임 <황금비늘의 비밀, 수확대기획 생명의 디자인>
08:00 똥똥똥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6:30 놀이터 구조대, 뽀인	
08:20 두다다(재)	13:10 초등 1년 EBS 여름방학생활	16:45 꼬피와 친구들(재)	22:45 달라졌어요
08:35 방귀대장 뽀뽀이	13:30 초등 3년 EBS 여름방학생활	17:00 방귀대장 뽀뽀이(재)	22:55 달라졌어요
08:50 꼬피와 친구들	13:50 즐거운 수학 EBSMATH	17:15 풍선 코끼리 발루(재)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4:00 사이틴(Sci-teen)	17:30 뽀롱뽀롱 뽀로로	24:05 지식채널e(재)
09:20 부릉!부릉! 브루미즈(재)	14:15 와글와글 친구들	17:4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4:10 EBS 인문학 특강
09:35 뽀뽀	14:20 꿀꿀! 페파는 즐거워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	01:00 EBS 걸작 다큐멘터리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알짜 국어 문법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07:00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6:00 초등 3년 EBS 여름방학생활
00:50 2013 논구술 <인문계 주제별 기출분석>	12:15 승승장승 <수학 I A형>	07:30 나의 성공비결	16:20 초등 4년 EBS 여름방학생활
01:40 올림포스 <영어특독의 기본 I>	13:05 " <수학 II>	08:00 전산세무회계 시험대비 강좌	16:50 초등 5년 EBS 여름방학생활
02:30 " <수학 I>	14:00 " <국어 A형>	08:30 전기기사/산업기사 대비 강좌	17:00 초등 6년 EBS 여름방학생활
03:20 " <생활과 윤리>	14:50 " <한국사>	09:10 TV 중학 <국어 ①②>	17:20 만원왕 평가문제풀이
04:10 " <사회>	15:40 " <동아시아사>	09:50 " <수학 I(상)>	18:00 TV 중학 <전과목 5-1>
05:00 " <한국사(상)>	16:30 " <세계사>	10:30 " <역사 1>	18:00 TV 중학 <문학 3>
05:50 2013 포스 <수학 I A형>	17:20 " <세계지리>	11:10 " <국어 ③④>	18:40 " <비문학 3>
06:40 암축탐스런 <물리 I>	18:10 " <법과 정치>	11:50 " <수학 2(상)>	19:20 필독 중학 한국사
07:30 2014 포스 <문학 I>	19:00 " <생활과 윤리>	12:30 등업산공 <수학 2(상)>	20:00 중학개념 풀장대기 <국어>
08:20 올림포스 <영어특독 기본 I>	20:00 EBS-N제 <국어 A형>(재)	13:10 " <수학 2(상)>	20:40 " <영어>
09:10 " <수학 I>(재)	21:00 " <수학 A형>(재)	13:50 " <과학 2(상)>	21:20 " <과학>
10:00 뉴 탐스런 <사회>(재)	22:00 인터넷 수능 <화법과 작문>특독의 문법 A형	14:30 " <수학 2(상)>	22:00 등업산공 <수학 3-2>
10:50 2013 포스 <수학 I A형>(재)		15:20 초등 1년 EBS 여름방학생활	22:4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15:50 초등 2년 EBS 여름방학생활	23:20 중학e포스 영문법 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8일(음 7월 23일 辛酉)	
子	36년생 손질한다면 훨씬 더 빛나리라. 48년생 복잡다단한 난제가 놓여 있다. 60년생 실력 발휘에 무리함이 없는 날이다. 72년생 기대했던 바가 변할 수 있다. 84년생 사소한 배려를 받더라도 그 효과는 크겠다. 행운의 숫자 : 20, 42	午	42년생 빨리 벗어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54년생 어떻게 표현하느냐하는 방식의 차이가 크다. 66년생 여자 하면 당하니 끝까지 방심하지 말라. 78년생 구체적인 언급이 수반되어야만 실효성이 있다. 행운의 숫자 : 74, 87
丑	37년생 희망의 해가 떠오르고 있다. 49년생 성과물 앞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리라. 61년생 전해들은 말에는 과장이 섞여 있음을 알자. 73년생 손에 땀을 쥐며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85년생 바로 잡을 때다. 행운의 숫자 : 28, 67	未	43년생 지금 확실하게는 이른 단계에 놓여 있다. 55년생 불가피한 상황이 감내해야만 하느니라. 67년생 진실은 진심으로만 통한다는 사실을 알라. 79년생 듣기에 좇아서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다. 행운의 숫자 : 91, 60
寅	38년생 파격적인 형태로 드러나리라. 50년생 확인하는 습관이 아말로 위기를 모면하게 해 줄 것이다. 62년생 형식을 버리고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4년생 여러 방향을 골고루 바라보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35, 82	申	44년생 말을 듣고 나면 상당한 충격에 빠질 수 있다. 56년생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신나게 즐기는 모습이다. 68년생 작은 현상을 무시하면 큰 화를 당하리라. 80년생 적합한 대상과 관련되면서 진전을 보인다. 행운의 숫자 : 61, 75
卯	39년생 빈곳을 매우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빠질 가능성이 높다. 51년생 실리를 추구해야만 공허하지 않느니라. 63년생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75년생 결과 속이 전혀 다른 형국이다. 행운의 숫자 : 50, 07	酉	45년생 기량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진면목을 보게 되리라. 57년생 노력의 요구되는 시점이다. 69년생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느니라. 81년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나 불안감을 떨쳐버려도 된다. 행운의 숫자 : 94, 49
辰	40년생 시간에 좌우되는 문제이니 점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52년생 바라보고만 있어도 즐거움을 더 할 것이다. 64년생 충천하는 기세로 크게 변장 하리라. 76년생 차마 밝히기 힘든 고민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90, 36	戌	46년생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알라. 58년생 삼사일인 한다면 면역할 수 있을 것이다. 70년생 담갑지 않은 모양새가 되더라도 의연히 대응하라. 82년생 낮게 책정하는 것이 지출을 최소화하리라. 행운의 숫자 : 89, 13
巳	41년생 시간이 지날수록 가관이다. 53년생 상당한 저항이나 부작용이 따를 수 있음을 감안하라. 65년생 두고두고 가슴에 남을 만한 일을 겪으리라. 77년생 깊은 인연이니 중히 여기는 것이 길운을 부른다. 행운의 숫자 : 86, 51	亥	47년생 이합집산 하면서 새로운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다. 59년생 진중하게 기다려야 이루어지는 법이다. 71년생 실행을 하기 위한 예비적 절차들이 필요하다. 83년생 제대로 파악해야 실수가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81, 2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고(故) 김광석 ‘사랑했지만’ 영어 곡 첫 리메이크

가수 샌드러드 “곡에 매료돼 자청”

고(故) 김광석의 '사랑했지만'을 해외 가수가 영어 곡으로 처음 리메이크했다. 14일 홍보사 조이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스웨덴 가수 안드레아스 샌드러드가 김광석의 2집 곡인 '사랑했지만'을 리메이크한 '올도우 아이 러브 유'(Although I love You)를 이날 온라인에 발표했다. 샌드러드가 영어 가사를 붙이고 노래한 '올도우 아이 러브 유'는 원곡과 달리 잔잔하고 감성적인 팝 발라드로 재해석됐다. /연합뉴스

다. 그가 스웨덴의 스톡홀름 거리를 거닐고 실제 녹음하는 장면을 담은 뮤직비디오도 함께 공개됐다. 홍보사는 "샌드러드가 다음 달 13일 '파주 포크 페스티벌'에 초청받은 걸 계기로 한국의 포크 음악을 접하며 '사랑했지만'에 매료돼 리메이크를 자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곡을 글로벌 에이전시인 썬뮤직코리아를 통해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음원 시장에도 선보일 예정이다. 스톡홀름 출신인 샌드러드는 현지 CCM(복음성가) 음악계에서 알려진 싱어송라이터로 자신의 정규 앨범 중 '잇 이즈 유 어 그레이스'(It is Your Grace)를 지난해 한국 시장에 발표했다. /연합뉴스